

한국미술 20세기 톺아본 '한국미술명작'

광주시립미술관 여름특별전

주요 미술관·갤러리 컬렉션 대역 근현대 대표 30여명 대규모 기획 '상상의 공동체를...' 등 4개 섹션 박고석 '설악 울산바위' 최초공개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명작 미술을 총망라해 톺아본다. 광주시립미술관은 국내외 주요 국립 미술관·문화재단과 개인컬렉터들의 소장품을 대역해 선보이는 여름특별전 '한국미술명작'을 8월 15일까지 제3-6 전시실에서 연다. 근현대 한국 미술의 20세기를 아우르는 대규모 기획전으로 구본웅, 권옥연, 권진규, 김기창, 김은호, 김환기, 문신, 문학진, 박고석, 박노수, 박래현, 박생광, 박수근, 배운성, 변관식, 신학철, 양수아, 오운, 오지호, 유영국, 이대원, 이상범, 이상자, 이우환, 이승노, 이인성, 이중섭, 임직순, 장욱진, 전혁립, 천경자, 최옥경, 하인두, 한묵, 허백련 등 유명 작가의 주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구성은 4개의 주제로 이뤄진다. 제3전시실에서는 '상상의 공동체를 넘어'라는 주제로, 김기창, 박고석, 박래현, 이상자, 이우환, 이중섭, 장욱진, 하인두, 한묵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존재에 대한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했던 이우환의 대표작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바람과 함께'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고, 구상작품 '군마도'와 추상작품 '문자추상'을



배운성 작 가족도.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통해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탐색했던 김기창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이중섭과 장욱진의 대표작들 또한 만날 수 있다.

제4전시실에서는 '우아와 아름다움의 세계'라는 주제로, 아름다움과 미술, 시각적 이미지와 예술과의 관계 등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는 그림을 만날 수 있다. '회화는 생명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

화한 것'이라고 정의한 오지호의 작품들과 1930년대 시인 이상의 절친이면서 당시로는 급진적인 형식의 작품들로 과격을 선보였던 구본웅의 작품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전시실에서는 '이성과 합리, 이상향'이라는 주제로, 글로벌하게 재편되는 정신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한 작가들을 살핀다. 이성주의, 합리주의는 21

세기인 오늘날에도 삶의 지배원리로 작동하고 있는데, 이 섹션의 작가들은 예민한 감각으로 합리적 사고방식을 체화했다. 김환기의 1950년대 반구상의 작품부터 그를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어 준 '점화' 시리즈까지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서구의 기하학적 추상을 한국적인 정서를 담아내는 독특한 그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유영국의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제6전시실에서는 '정체성과 삶'이라는 주제로, 자아의 신념과 공동체의 가치 형성을 작품 세계를 투영했던 작가들을 살핀다. 오운의 '팔업일화'는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인물의 간결한 동작들로만 표현해 조형성의 극한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배운성의 '가족도'는 서양의 기법과 형식을 빌려와 조선의 마음을 담아낸 수작이라 평가받는 작품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고석의 '설악 울산바위'를 최초로 만나볼 수 있다. 그는 산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캔버스에 강렬한 색과 함께 표현한 것으로 유명하다. '설악 울산바위'는 1994년 제작한 유화 작품으로, 노란색의 대비와 함께 원경의 울산바위에서 보이는 강렬한 붓터치가 특징이다. 이 작품은 그동안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한 서울 명륜동의 '고식 공간'에 유족들이 보존하고 있었는데, 이번 광주시립미술관의 '한국미술명작' 전을 맞아 최초 공개된 것이다.

이번 전시는 널리 알려진 작가와 작품이 중심이 된 전시다. 여러 국립미술관의 '이건희 컬렉션'으로 공개돼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작품을 20여점 이상 선보이고 가나문화재단에서 소장하고 있는 근현대 대표작가의 작품들도 전시작품 목록에 포함시켰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광주시립오페라단 공개 오디션

8일까지 원서접수

광주시립오페라단은 2024년 하반기 정기공연의 출연자 공개 오디션을 통해 주조연 출연자를 선발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실기 심사를 거쳐 선발된 최종합격자는 오페라 '토스카(9월 6일-7일·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와 '라 트라비아타(10월 25일-26일·광주 예술의전당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번 오디션은 △원서접수(7월 8일까지) △현장실연심사(7월 17-18일)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7월 19일에

발표한다.

지원 자격은 △관련학과 졸업생 △관련 분야 유학 경험자 △오페라 작품에 경력이 있는 자로 전국 단위 공개 모집한다.

7월 17일-18일 광주시립오페라단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현장실연심사에서 응시 작품별 △지망 배역 아리아 1-2곡 △자유 아리아 1곡 등을 준비해야 한다. 필히 개인 반주자를 동반해야 한다.

원서접수는 7월 8일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http://gjart.g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하정웅컬렉션 한국추상미술' 연계 특강

내일 하정웅미술관·서성록·정금희

광주시립미술관은 '하정웅컬렉션으로 만나는 한국추상미술' 전시연계행사로 '한국미술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한국과 호남의 추상미술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강의로 2일 오후 2시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에서 개최된다.

강좌는 현재 진행 중인 전시에 맞추어 한국추상미술의 거장 작품과 에보끄를 중심으로 한 호남추상미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국추상미술과 호남 미술사의 권위자인 서성록 안동대학교 명예교수와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정금희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서성록 안동대학교 명예교수는 1957년 창설된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미술평단을 이끌고 있는 미술평론가이다. 특강 주제는 '한국추상회화에 대한 단상'으로 한국추상미술의 전반을 살피는 시간을 갖는다.

강좌를 통해 한국 추상회화는 서구의

모더니즘을 기법적인 측면에서 수용했으나 한국의 정체성은 서구에서 유입된 것과는 다르게 우리만의 문화적 토대 위에 구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외래의 것을 수용했다더라도 이를 우리 방식으로 발전시킨 점을 통해 한국추상미술의 독자성을 이해할 수 있다.

정금희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장, 유럽문화예술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대예술연구와 미술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미술평론가이자 교육자다. 강의 주제는 '광주·전남 추상정신 60년, 에보끄를 톺아 보다'이다.

광주를 중심으로 60년 동안 현대미술을 추구한 에보끄 미술단체를 통해 예술가들의 끊임 없는 혁신에 대해 강의한다. 이를 통해 1964년 에보끄 창립 이후 영포 르멜, 모노크롬 추상, 포스트모더니즘 미술까지 호남 추상미술의 역사를 알 수 있다. 에보끄의 각종 국내외 전시와 개인전 등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호남추상미술의 의미에 대해 되짚어 본다. 도선인 기자



짜릿한 공룡시대로 여행

국립광주과학관 '2024 다이노 월드' 한국 발견 공룡 등 전시·체험 다채

국립광주과학관은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남녀노소 누구나 관심 있고 좋아하는 '공룡'을 주제로 한 특별전 '2024 다이노 월드'를 9월 1일까지 연다. 마치 살아있는 공룡시대로 온 듯한 생동감과 함께 지구의 탄생부터 공룡시대의 스토리를 과학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탐구하며 즐길 수 있다.

국립광주과학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특별전은 △다이노 타임머신 △다이노 뮤지엄 △다이노 파크 △다이노 랩 등 다양한 전시와 체험으로 구성된다.

움직이는 티라노사우루스가 환영하는 공룡 게이트를 지나서 '다이노 타임머신' 존에서는 지구의 탄생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46억년의 드라마와 함께 실물 화석으로 보는 다양한 생명의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이노 뮤지엄' 존에서는 중생대 공룡 발자국을 보면서 신비한 분위기가 연출된 쥐라기 포레스트와 살아 움직이고 있는 듯한 스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등 15종의 생동감 넘치는 공룡 세상이 펼쳐진다.

특히 지난 2003년 전남 보성에서 발견되어 우리나라 이름과 지명이 붙은 최초의 공룡인 코리아노사우루스보성엔시스(Koreanosaurus boseongensis)와 2008년

경기도 화성에서 한국 최초로 발견된 원시 각룡류인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Koreaceratops hwaseongensis) 모형 등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외에도 '다이노 파크' 존에서는 △다이노 발자국 AR 체험 △레고로 만드는 공룡 △공룡 퍼즐·공룡 그리기 등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다. '다이노 랩' 존에서는 고생물학자가 되어보는 △화석 발굴체험 △지점도 화석 만들기 △3D프린트 공룡모형 출력 △3D펜으로 그려보는 공룡 세상 △호박화석 현미경 관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2024 다이노 월드' 특별전을 준비한 국립광주과학관 전시기획실 문기현 연구원은 "여름 시즌을 맞아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실체처럼 움직이는 공룡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을 준비했다"며 "공룡특별전 외에도 '물과학체험장' 등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립광주과학관 공룡특별전 '2024 다이노 월드' 입장료는 어린이·청소년 8000원, 성인 4000원이다. 20인 이상 단체는 50% 할인되며, 3세 이하는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전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